심해어 생존방식의 믿음

(시편 26:1~12)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5.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6.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9.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11.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심해어 생존방식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심해어 생존방식의 믿음'

해안에서부터 바닷물의 수심 200m까지를 대륙붕이라 하고, 심해(深海)의 해구 해연이라고 부르는 바다 속의 움푹 들어간 곳을 측정해보면 10,000미터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심해의 무서움은 바로 수압에 있습니다. 10미터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이 높아지는데 수심 10,000미터의 수압은 1,000기압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 손바닥만 한 면적에 4톤 정도의 코끼리를 25마리를 올려놓은 정도라고 합니다. 4톤이 25마리면 100톤이므로 100,000킬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심해잠수정을 만들었는데 그 전체의 표면적이 손바닥 10,000개에 해당한다면 백만 톤의 무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아무리 강하게 만든 심해잠수정이라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백만 톤으로 내리 누르면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잘 만들었다는 잠수함이나 심해잠수정의 최대 잠수 깊이가 1,00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3,000미터, 4,000미터, 5,000미터를 넘어가는 심해에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밟으면 다 눌려죽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물고기들이 그 심해의 압력 속에서도 유유히 생존합니다. 보통 대륙붕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 속에는 부레가 있고 또 다른 기관 안에 공기를 채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심해어는 부레가 없고 어느 기관에도 기체를 담지 않습니다. 기체가 있으면 수압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콜라를 다 먹고 빈 페트병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6,000미터 물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느 순간 수압으로 인해서 콱 찌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심해잠수정을 통해서 6,000미터 가지고 내려가서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담으면 결코 콜라병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닐 안에 물을 담아서 고무줄로 묶어도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심해어들은 쉽게 뜨고자 몸속에 기체를 담지 않고 액체를 담습니다. 심해어는 이렇게 안팎의 물의 압력을 같게 함으로서 수압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심해어들의 몸은 마치 6,000미터 아래의 물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해어의 모습이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 하는 참 믿음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평강이 쉽게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을 맛본지 오래 되었고 맛보았어도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만족감이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지는데 세상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릉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행복과 만족과 평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 배우자 친척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 인해서 평강이 깨어져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남편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도 남편 때문이 아니고,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상사 때문에 나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다이기 때문에 수압이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장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분의 머리털로부터 발끝까지의 생김새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 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악이 발생하더라도 그 악이 표현되는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악인들이 자기에게서 발생하는 악을 자기 멋대로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히틀러 같은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일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산산조각 나고 평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수압이 작용하는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부레를 달고 수면 위로 뜨려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눈 앞에 있어서 괴롭힐 때에 그 원수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셨다면 그 사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긋지긋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수압으로 내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만 합니다. 심해어가 어마어마한 수압을 견디면서 유유히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의 압력을 주는 물을 몸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4~9절에서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자들, 행악자들, 악한 자들, 죄인들, 살인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뜻이 수압으로 작용하는 깊은 바다 속에서 마음에 부레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평강이 깨어지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 속에서 만족이 없으니 나를 만나는 동안에 내게 빨대를 꽂아서 무엇인가로 자기 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들을 내 앞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수압을 견딜 수 없어서 평강과 행복은 산산조각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허망한 사람들과 간사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행악자들과 죄인들과 살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평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완전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완전함은 곧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람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겨도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돈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의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마음은 건강의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당면한 삶의 문제를 마음에 받아들인 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면 불교신자인 것이고, 상담가를 찾으면 상담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의지함은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기쁘고 행복해짐을 믿은 것입니다. 의지함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누구로 채우는가에 달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을 의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도 나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당장 병에 걸려 죽게 생겼더라도 내 마음은 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병이 낫든 말든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마주하실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시지 않는다면 빨리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같이 살고자 하심일 것이고, 병을 고쳐주신다면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몫과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죽은들 손해가 아니며 낫는다고 해도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미 다른 사람의 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 뿐 나의 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의 소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의 수압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마음속에 부레를 달고 떠오르려 하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바다 속에서 자기의 뜻으로 만든 기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포는 결코 유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들처럼 행동하지 않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함으로서 평강이 깨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돈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면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 만족하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면 그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어떻고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TV를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이벤트를 해줍니다. 촛불을 켜놓고 풍선을 달고 가지가지 이벤트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기쁩니까? 적어도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은 그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정서가 메말랐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마주하기 전에 여호와로 충분히 기뻐하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남편에게 기쁨을 요구하겠습니까마는 그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살다보니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뜻의 수압과 전혀 다른 종류의 내용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강은 산산조각 납니다.

심해어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부레를 떼어버리고 뜨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에 6,000미터 깊이에서도 살아갑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사로부터 전해들은 건강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병 걸린 몸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병든 몸보다 앞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내 몸에 병이 난 것이지, 내 몸에 병이 난 뒤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중에 병이 났으니 합당한 뜻이 있으시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그 병은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병든 몸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을 독차지하시고자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엘리트 코스를 못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후로는 전혀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자 박차를 가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돈 많이 벌며 형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애쓰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전에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재벌 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레를 가진 물고기들이 쉽게 수면으로 떠오르기 위해서 부레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의 바다 속에 살면서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내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꾸만 나의 내부에서 내 뜻과 소원을 발동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장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게 이런 형편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무조건 옳으

시고 무조건 사랑이심을 고백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환경에 대해 어떤 뜻을 펼쳐 나가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확약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들었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며 나았다고 해서 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명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마음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 들이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되는 이 세상의 바다 안에서, 나의 외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총화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외부를 향해 그 뜻을 발산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는 동안 약속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 부자가 됨으로서, 나를 아버지의 나라가 펼쳐지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